

##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고독한 죽음’이 들어왔다



**시사저널**

이태준 기자



“아저씨들은 왜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전화를 할까.”

취재는 이 사소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지하철 노약자석 옆, 카페 구석 자리, 식당 한쪽 테이블. 어디든 한 번쯤 마주쳐 본 풍경이다. 처음엔 혼한 무례함이라니 했다. 시끄럽다, 무신경하다, 다른 사람 생각을 못 한다. 그렇게 단순한 인상으로 정리해 두고 지나치는 게 편했다.

그러나 그 큰 목소리 뒤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보니, 점점 다른 그림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것은 외침이 아니라 신호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서서히 열린 자기 존재를 어디서든 한 번쯤은 다시 확인받고 싶은 마음. 끝내 발화되지 못한 호소가, 통화라는 가장 익숙한 형식을 빌려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 가설이 그럴듯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누구보다 강해 보이고 싶었던 중장년 남성이 작아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사업이 기울고, 직장이 사라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어느 한 지점에서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은 소리 없이 꺼졌다.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되는 일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본인의 입을 통해 알려지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서 자리가 비고, 어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고, 어느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끊어진다. 그렇게 한 사람이 사회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가는 동안, 우리 대부분은 그의 이름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는 청년의 좌절에, 노인의 외로움에, 아동의 안전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책의 언어와 예산의 흐름도 그 결을 따라간다. 마땅한 일이고, 더 두텁게 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장년 남성은 늘 그 관심의 바깥에 서 있었다. 가정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한 가정의 기둥으



2026년 3월17일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양천구 거주 중장년 1인 남성 가구를 위한 공유 냉장고용 반찬을 조리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로서 사회를 떠받쳐 온 세대지만, 정작 본인이 무너질 때는 그 어떤 안전망도 그들을 받쳐 주지 못했다. “아저씨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는 사회의 무언의 시선 앞에서,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방법조차 잊어 갔다. 이 침묵의 격차는, 통계로만 잡히지 않는 무게로 도시 곳곳에 쌓여 있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천구의 한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사회복지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끌어낸 신뢰의 자리에, 기자가 처음 보는 얼굴로 끼어드는 일이 쉽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었다. 카메라와 노트를 앞세우

는 순간 닫히는 마음이 있고, 마이크 대신 빈 손과 눈빛으로만 다가가야 비로소 열리는 마음이 있다. 이번만큼은 기록보다 듣는 일이 먼저라고 마음먹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른들은 조용히 우울했고, 깊이 고독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고독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고독에 너무 오래 익숙해진 탓이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내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괜찮다고 답하셨다. 분명히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힘들다”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인내를 미덕으로 살아온 세대의 무게였을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을



2026년 3월17일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범룡 과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배우지 못한 시대의 흔적이었을까. 대화도 짧고 단단했다. 길게 풀어 놓는 법이 없었다. 그저 더 오래 앉아 있고, 더 자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침묵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로 한 문장씩 새어 나오는 것이 있었다.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분은 21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한 선생님이었다. 두 딸을 모두 독립시킨 뒤, 그는 세상과의 끈을 하나씩 놓아갔다. 친구의 연락도, 친지의 안부도 줄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현관문조차 열지 않게 됐다고 했다. 외로움이 거대한 짐승처럼 거실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그 짐승과 너무 오래 함께 살아 그것이 외로움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닫혀 있던 문을 다시 연 것은, 사회복지사가 현관 밖에 걸어 둔 라면 한 봉지와 짧은 손편지였다. 거창한 정책도, 잘 짜인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안부 한 줄, 끼니를 걱정해 주는 짧은 마음. 선생님은 그 봉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며칠 뒤 처음으로 문을 열고 복지관을 찾아오셨다고 했다.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그 라면 한 봉지에서 옮겨붙은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침



2026년 3월16일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천구 거주 중장년 1인 남성들이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해 밴드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묵의 문 앞에 라면 봉지를 거는 일은, 한 번의 선의가 아니라 끈질긴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왔다. 거대한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한 사람씩 직접 찾아가고,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는 그 반복된 걸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상 쪽으로 돌려세우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50, 60대 선생님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지만, 상처의 곁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한때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분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호명이 모두 사라지자, 자신을 부를 단 어 한마디조차 갖지 못한 채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한 세대 전체가 길을 잃고 있었다.

역설적인 순간은, 절망을 취재하러 간 자리에서 찾아왔다. 이분들은 오히려 내게 희망을 건네주셨다.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잘 쓰고 가라고. 자기 안의 슬픔을 토크로 풀어 놓으면서도, 끝에는 어김없이 듣는 사람의 안부를 챙기셨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향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어른의



2026년 3월16일 서울 양천구 신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천구 거주 중장년 1인 남성들이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해 밴드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책임감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한참을 복지관 앞에 서 있어야 했다.

기사를 쓰는 동안 여러 번 멈춰 섰다. 그분들의 말을 활자로 옮기는 일이 자칫 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이번 취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보다,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더 깊이 가르쳐 주었다. 우리 사회의 중장년 남성은 통계의 한 줄, 정책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잡히기에는 너무 큰 침묵을 안고 살아간다. 이 사연이, 이 기사가, 그리고 이 한 편의 글이, 지금

어디선가 홀로 버티고 있을 중장년 선생님들에게 작은 라면 봉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어느 날 문을 열어, 다시 세상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

시사저널 이태준 기자